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실종됐다더니...남아공서 6세 딸 인신매매한 엄마 기소**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떠들썩하게 한 6세 소녀 실종 사건의 내막이 친모의 인신매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더시티즌 등에 따르면 전날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살다나베이 브레덴부르크 치안 법원에서 라켈 상탈 스미스(33)와 그의 남자 친구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스미스의 딸 조슬린(6)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미스는 지난달 19일 출근하면서 동거 중인 남자 친구에게 맡겨 놓은 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스미스의 집 주변을 시작으로 살다나베이 전역에서 경찰과 소방관, 자원봉사자는 물론 해군과 특수 탐지견 부대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작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남아공의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슬린 실종 이후 며칠간 현지 언론에선 이웃 주민들이 스미스가 조슬린을 2만 랜드(약 140만 원)에 팔아넘겼다고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스미스는 이 보도가 모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주말 그의 집에서 약 1km 떨어진 들판에 버려진 조슬린의 옷이 발견되면서 인신매매 정황이 드러나 지난 6일 스미스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슬린의 행방과 생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전날 첫 공판이 열린 브레덴부르크 치안 법원 밖에는 많은 군중이 모여 “조슬린을 위한 정의”를 계속 외쳤다. 조슬린을 포함해 세 아이의 어머니인 스미스의 다른 두 자녀는 현재 친척의 보호 아래 있다고 현지 eNCA 방송은 보도했다.

웨스턴케이프주 경찰청장은 “조슬린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끌려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를 찾는 것”이라며 “모든 관계자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시편 37:27-28)

하나님, 친모의 손에 의해 팔려 간 조슬린의 안전과 조속한 구출을 주님께 구하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생모와 공범자들을 주께서 꾸짖어 주십시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고 정욕과 탐심으로 눈멀게 하는 악한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라 욕신을 사랑하는 악의 뿌리가 끊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필요한 모든 심령에 복음을 들려주사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기도로 모든 다음세대가 진리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인도 기독교 부부, 기독교 신앙 포기하지 않아 마을에서 쫓겨나

인도 중부의 한 기독교인 부부가 전통 부족 종교 추종자들의 협박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모닝스타뉴스가 20일 전했다. 아야투 램 포디아미(35)는 차티스가르 주 수크마 시에서 31마일 떨어진 수크마 지역 구판팔 마을에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폭행을 당한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7살과 4살의 두 딸을 데려가지도 못한 이들에게 마을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추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자 11명의 기독교인 가족은 부족 종교로 돌아갔다. 그러나 포디아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약 100명 군중이 도끼와 칼, 막대기로 공격하자 그는 정글로 도망쳤고, 그의 아버지는 집에 숨어 있다가 폭도들에게 구타를 받고 사망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라디아서 6:9-10)

하나님, 전통 부족 종교 추종자들의 칼과 도끼의 위협에도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인도의 부부와 아직 함께하지 못한 두 딸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포기시키려는 모든 박해로부터 인도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들이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으로 다시 이전의 터로 돌아간 11명의 가족과 부족 종교 추종자들에게 교회가 기회를 늦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영혼의 추수를 거두게 하소서.

▲ 동반연 등 “동성애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결 파기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2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1심에 대한 법리적 판단 대신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적극주의 판결’이라며 헌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도덕과 풍속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임을 명확히 하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을 보면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재판부는 양자가 같다는 지극히 주관적 판단을 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입법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 관계 파트너 피부양자 자격 인정은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하나님, 남녀 간의 결혼 관계가 아닌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를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한 불의한 판결로 인해 탄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의 국민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법원의 판결을 파기해 주셔서 동성애가 옳다 하는 지지를 받지 않도록 교회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먼저 겸손히 주의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받아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하시도다”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 공개...“반역·내란 등에 최대 종신형”**



홍콩 당국이 추진 중인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AP는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며 “정부 통치에 대한 도전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반대파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담겼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같은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들과 언론인들은 이 법률에 대해 자신들의 일상 업무가 범죄화될 수 있다며 강한 두려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법안 내용은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압력 속에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이날부터 개최하는 법안 토론회를 계기로 공개됐다.

홍콩 정부가 연내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앞서 2020년 제정한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현재로서는 4년 전에 비해 홍콩 민주 세력이 대폭 축소돼 항의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적은 데다 국회인 입법회도 친중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6,17-18)

하나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권한 확대와 이에 도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담긴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주께서 엄히 다루사 통과되지 않도록 살피주십시오. 자신의 세력을 끝없이 확장하려는 중국 정부를 책망하여 주시고, 자유를 억압당할 위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주의 공의를 의지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은 이때에도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법도를 준행하는 홍콩의 교회를 통해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욱 전진하는 주의 나라의 위엄을 보이소서.

▲ 우간다 기독 남성, 무슬림에게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살해돼

우간다 동부에서 지난 3월 8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40대 기독 남성을 살해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18일 전했다. 키이사 마솔로(45)는 나칼로케와 부사자브완쿠바 거리에서 설교를 마치고 시론코 지역 부나부카 교구 나키티쿠 마을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이슬람 복장을 한 복면 남성 7명이 습격해 그를 데려갔다고 그의 어머니 노라 난데게가 말했다. 난데게는 “아들을 데려간 후 세 명의 남자가 남아서 ‘알라께서 당신의 아들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셔서 벌을 주러 나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음날 마솔로는 아랍어 쪽지와 함께 덤불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쪽지에는 ‘우리는 무슬림 형제자매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당신은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로마서 8:17-18)

하나님,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마솔로 형제의 가족들을 주께서 축복하고 위로하시 영광스러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일로 인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춤하지 않게 하시고 무슬림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짓과 미혹에 속아 이슬람을 맹신하는 이들의 헛된 믿음을 파하여 주사 박해자요 핍박자의 자리에서 돌이켜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로 살게 하소서.

▲ 아이티, 갠단 활보에 주민이 자체 방어 나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갠단이 수도를 장악하며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자체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미국 CNN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현재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80%에 해당하는 지역이 갠단에 장악돼 매일 경찰과 갠단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외출을 자제하면서 시내 도로는 텅 빈 상태다. 갠단은 이달 초부터 공항·경찰서·정부 청사·교도소 등을 잇따라 공격하며 도시 전역의 식량·연료·물 공급을 막고 있다. 치안 부재 속에서 포르토프랭스의 일부 구역 주민들은 ‘브와 케일(껍질을 벗긴 나무라는 뜻)’로 알려진 자경단 운동으로 갠단에 맞서 마체테(날이 넓은 큰 칼)로 무장하고 지역 경찰과 공조하며 갠단과 싸워 이들을 몰아내고 있다. 하지만 때론 자경단이 갠단 단원들을 붙잡아 잔인하게 살해하고 불태우는 보복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시편 18:16-18)

하나님, 총으로 무력을 행사하며 나라를 극심한 공포로 끌고 가는 갠단으로 인해 칼로 방어하며 보복으로 해결하려 하는 아이티 주민들의 비참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복의 끝은 또 다른 보복일진대 이 땅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탐심과 정욕으로 사탄의 종노릇 했던 서로 간의 잔인한 다툼을 멈추게 하소서. 여호와와의 강한 손을 펴사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아이티를 건져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교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속히 주의 공의로 이 땅을 잠잠케 하옵소서.

**“엄위하신 일로 응답하시며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록 콘서트 기다리는데 빗발치는 총탄...객석 수천 명 아비규환**



22일 금요일 저녁(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공연장에서 록밴드 무대를 기다리던 관객들은 순식간에 터진 총성과 폭발음, 피비린내로 아비규환에 빠졌다. 공연 직전 벌어진 무차별 총격에 객석은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가득 찼으며, 수천 명이 출구로 몰려들며 ‘생지옥’으로 변했다고 AFP통신은 이날 전했다.

이날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탈출한 음악 프로듀서 알렉세이는 AFP와 통화에서 총격이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총이 여러 차례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고, 한 여성의 끔찍한 비명이 들렸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비명이 이어졌다”며 “이후 3-4차례의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 더 많아졌다”고 전했다.

알렉세이는 그 직후 공연장 전체가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관객들과 함께 몸을 숨긴 채 탈출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이 공격으로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사망자는 62명이며, 부상자는 최소 146명으로 전해졌다. 사상자 중에는 어린이도 여러 명 포함됐다.

다른 현장 영상에서는 괴한들이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는 가운데 몇몇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6,200명 수용이 가능한 공연장은 전부 매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자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총격 직후 수류탄 혹은 소이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공연장 지붕에서는 검은 연기가 계속 피어났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는 수백 명의 경찰과 폭동 진압대가 투입돼 인근을 봉쇄한 상태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공연장 지하를 통해 약 100명을 구조했으며 옥상을 통해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염으로 공연장 지붕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당국은 이를 ‘테러’로 지목하고 무장 괴한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IS)는 텔레그램에 성명을 올리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대형 모임을 공격했다”고 범행을 자처했다. ISIS는 이들 전투원이 무사히 ‘본부’로 복귀했다고도 주장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시편 65:5-7)

하나님, 갑작스러운 테러로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러시아 모스크바의 영혼들에게 주님을 계시하여 주사 의로우심과 권능으로 응답하시는 주께 나아오게 하소서. 주님의 공의 앞에 사건의 진상이 밝히 드러나 모든 소요가 잠잠해지며 테러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몸과 마음에 큰 아픔을 겪게 된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고, 구조가 속히 이루어져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 러, 대선 푸틴 대통령 5선 확정...종신집권 길 열어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5선을 사실상 확정해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18일 오전 개표가 95.08% 진행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87.32%로 집계됐다. 이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득표율은 90%를 넘나들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점령지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국제법 규범과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유럽연합도 이들 지역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영·독 등은 푸틴 대통령 정적들의 투옥과 주민 검열로 투표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잠언 16:5-6)

하나님, 푸틴의 대통령 당선 확정으로 인한 장기 집권과 투표 과정이 원칙에서 벗어나 공정하지 못한 행위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러시아와 관련 국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푸틴 정권의 교만한 마음과 멸망의 구덩이와 같이 만족을 모르는 탐심을 꾸짖으사 이 땅에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쟁에 떠밀려 가고 있는 자국민과 거짓에 속아 무리하게 징집된 외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 호주 엘지비티(LGBT) 외교장관, 동성결혼 해

호주의 엘지비티(LGBT) 외교장관인 페니 워(55)이 동성결혼을 했다고 호주 AAP통신 등을 인용, 연합뉴스가 18일 전했다. 결혼식에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여러 각료가 참석했으며 두 사람이 체외수정을 통해 얻은 두 딸 알렉산드라(11)와 한나(8)가 들러리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의회는 2017년 12월 7일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8년 1월 9일부터 동성결혼 등록이 가능해졌다. 상원의원이던 워 장관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호주에서 유명한 결혼잡지 '화이트매거진'은 기독교 신념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광고주의 반발로 결국 폐간된 바 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로마서 13:12,14)

하나님, 세상 권세를 이용해 주님을 대적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여 사탄의 종노릇 하는 워 장관과 동성애를 옹호 하는 모든 영혼을 주께 고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불이익에 처한 사람들을 기억하사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하여 자신 있으신 주님께 호주를 의탁하오니 이 일에 통로 된 교회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참된 진리만을 전하게 하옵소서.